

삼성SDI-삼성전자, 유기EL 집안싸움

삼성SDI, NEC의 SNMD 지분 909억원에 인수 ... 오리온 · SKC도 준비

삼성SDI가 유기EL 합작 자회사인 SNMD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에 한발 앞서 중대형 유기EL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SDI는 2월27일 삼성SDI와 일본 NEC 양사가 2001년 합작 설립한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SNMD)의 NEC 측 보유주식 전부와 유기EL 관련 특허를 삼성SDI가 인수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삼성SDI는 주식 인수에 590억원, 특허권 인수에 319억원 등 909억원을 투입했다고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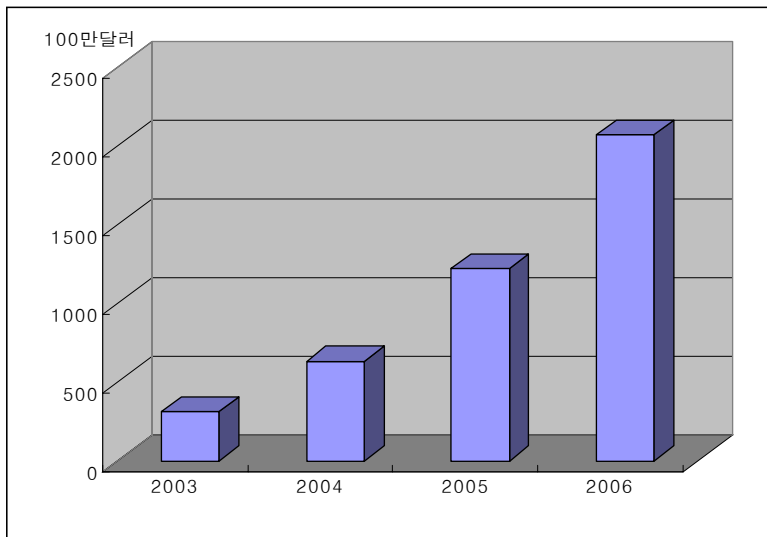
SNMD는 2003년 휴대폰용 소형 모바일제품에 사용되는 수동형(PM) 유기EL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1%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노트북과 TV 제조용으로 사용될 능동형(AM) 유기EL도 2003년 15.5인치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2005년 본격 양산을 준비하는 등 국내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SDI의 NEC 보유지분 인수는 유기EL 분야를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삼성SDI와 디스플레이분야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NEC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2003년 삼성전자 LCD 총괄 이상완 사장이 10인치 이상 중대형 유기EL을 삼성전자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것에 자극받아 중대형 양산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세계 유기EL 시장추이



삼성SDI는 최근 유기EL 사업을 연구소에서 모바일디스플레이 사업부로 이관하는 등 사업 본격화에 앞서 조직채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NEC는 계속된 경영난으로 디스플레이 부문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EC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을 일본 파이오니어에게 매각하고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자회사도 분사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를 구조조정하고 반도체와 네트워킹 사업에 주력하는 사업구조로 재편했다.

현재 국내에서 수동형 유기EL을 양산하고 있는 곳은 삼성SDI(SNMD)를 비롯해 네스디스플레이와 네오뷰코오롱 등이며 오리온전기와 SKC는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능동형 유기EL은 이미 시제품을 발표한 삼성SDI 외에 LG전자가 양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도 TV용 유기EL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EL(Organic Electro Luminescence Display)은 전기를 흘려주면 스스로 발광하는 유기물질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로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에 비해 시야각이 넓고 전력 소모량이 적으며 응답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Chemical Journal 2004/03/12>